

9월 6일(월) / 겔 39-42

- ▶ **내용요약** : 에스겔 3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국에 대하여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한편 40장에서 에스겔은 이상 중에 새 성전의 회복을 보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 이를 통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소망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41장에서 에스겔은 성전 내부, 즉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 등을 보았고, 또한 그 규모를 자세히 측량했다. 이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 ▶ **질문** : 아래 빈 칸을 각각 채우시오. (39장)  
내가 이제 내 거룩한 ( )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 )을 베풀지라"
-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연약함으로 인해 위축될 때에도 이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9월 9일(목) / 단 1-4

- ▶ **내용요약** : 다니엘 1장에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으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셨고,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았다. 한편 2장에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숨긴 채 해몽을 요구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왕의 꿈을 드러내고 그것을 온전히 해석했다. 또한 3장에서 왕은 금 신상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였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것을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한편 4장에서 다니엘은 또 다시 왕의 꿈을 해석하였고, 그 꿈의 해석대로 왕은 잠시 궁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았다. 이후 다시 왕권을 회복한 후 느부갓네살 왕은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했다.
- ▶ **질문** :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사람들은?(1장)
- ▶ **생각하기** : 세 친구들은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외의 다른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보답하셨고,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그들을 건지셨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실 것이다.

9월 12일(일) / 호 8-10

- ▶ **내용요약** : 호세아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책망하셨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모른다고 하시고 그들의 우상들 또한 파괴될 것이라고 선언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회적인 타락을 고발하셨다. 한편 9장에서는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이스라엘에 이르렀음을 선포하셨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자신의 몸을 바

9월 7일(화) / 겔 43-45

- ▶ **내용요약** : 에스겔 43장에서 에스겔은 동쪽을 향한 문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 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문이었는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았다.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안뜰에 이끌림을 받았는데, 성전 안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를 설명해주시면서 그것을 봉헌하도록 하셨다. 이후 4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의 성소출입을 금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레위인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시고 그 자리를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에게 맡기셨다. 또한 4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에 대해 설명하시고, 첫째 달 열나흘날에는 유클월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 ▶ **질문** :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셨나? (43장)
-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번제단에 대해 강조하신 이유는 성전이 예배의 초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이사를 인용하시면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다(마21:13). 물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교와 봉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은 '예배'임을 기억하자. 우리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9월 10일(금) / 호 1-4

- ▶ **내용요약** : 호세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명령하셨다. 이에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세 자녀를 낳았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고발하셨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친 들로 데려가 위로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궁홀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로루하마)를 궁홀히 여기고, 한 백성이 아니었던 자(로암미)를 내 백성으로 여기겠다고 하셨다. 한편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음란한 삶으로 나아가 그 여자를 다시 되찾아 오도록 명령하셨고, 이에 호세아는 순종하여 자신의 아내를 되찾았다.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셨다.
- ▶ **질문** : 호세아가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은? (1장)
-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한없이 베푸신다. 그분은 궁홀히 여김을 받지 못할 이들에게 궁홀을 베푸시고, 버림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다시 끌어안으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로마서 5장을 읽으라)

쳤다. 그리고 그 우상과 같이 가증한 존재가 되었다. 10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고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성하게 하셨으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을 믿고 교만해졌고, 악을 발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9월 8일(수) / 겔 46-48

- ▶ **내용요약** : 에스겔 46장에는 안식일과 초하루에 관한 규례와 그것들을 온전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군주와 그의 기업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즉 통치자들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업을 변경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47장에서 에스겔은 성전 문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성전의 앞면은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문지방 아래에서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스며 나온 그 물이 큰 강을 이루어 풍성한 생명을 이루었다. 48장에는 회복될 땅과 각 지파의 기업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또한 거룩한 땅이 구별되고 각 지파에 따라 기업이 분배될 것이다.
- ▶ **질문** :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어떻게 되었나? (47장)
- ▶ **생각하기** : 하나님의 사람은 타락한 세상과 그로 인한 아픔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소망 또한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슬픔과 좌절이 아닌, 소망의 삶을 통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자.

9월 11일(토) / 호 5-7

- ▶ **내용요약** : 호세아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경고하셨다. 이스라엘은 음행과 교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이로 인해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어서 6장에서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경외심도 없었고, 인애를 행함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그저 거저된 예배와 형식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의 여러 죄악들을 드러내셨다. 먼저 그들은 악한 것으로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여 정치적 혼란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들을 더 의지하였고,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났다.
- ▶ **질문** : 아래 빈 칸을 채우시오. (6장)  
“나는 ( )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 )을 원하노라”
- ▶ **생각하기** :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에 대한 열정도 없었다. 그들은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과 거리가 멀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간절히 구하는 성서인이 되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 은혜를 구하자.

-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10장)  
“그들이 ( )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 ▶ **생각하기** :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애와 정의를 짓밟은 책임은 언제나 그것을 범한 죄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회는 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자비를 구하자